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 - "공산주의 그 이후의 체제는 존재하는가?"

스즈미야_하루히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단계를 최종적인 역사 발전의 단계로서 해석합니다. 레닌의 고전적인 역사 발전 5단계론에서 인류의 역사는 변증법을 통하여 원시공산제 -> 봉건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로 진화하며, 따라서 공산주의는 인류의 완전무결한 최종적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테제에 따라 여러 철학자들도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의 산물이 20세기에 존재한 수많은 공산주의 사상들이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학파에 속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이러한 <공산주의적 역사 발전의 단계>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알랭 바디우에게 있어, 공산주의는 다른 공산주의자들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바디우는 공산주의를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의 제거" "노동 분업의 소멸" 등으로 독해합니다. "시민사회와 분리된 강제적 국가의 존재는 더는 필연성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근거한 장기에 걸친 제조적 과정은 국가를 소멸시킬 것" 역시 포함합니다.

하나 바디우는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는다고 주장합니다. 바디우는 그러한 가설들을 넘어, 공산주의라는 대상은 일종의 이데아(idea)로서 존재하며, <지적 표상의 일반적인 집합>을 나타낼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에게 있어 공산주의는 실재적인 체제임과 동시에, 이데아로서 기능하는 완전무결한 세계이며 현실 세계는 그러한 이데아를 모방하여 점차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대상입니다. 바디우는 그런 공산주의 단계의 특수성을 <항상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평등의 순수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존재한 20세기 공산주의 흐름 역시 지적합니다. 우선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소련식 공산주의의 경우, 애초에 불가능했던 시장경제 대 계획 경제의 생산력 싸움의 대결이었고, 계획 경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생산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됨을 바디우는 말합니다. 반대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한 유럽공산주의는, 반철학의 상태인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맑스주의의 고유성이 무너졌음에 대해 비판합니다.

바디우에게 있어, 공산주의의 시퀀스는 크게 두가지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1789년부터 1871년까지의 프랑스 혁명~파리 코뮌 기간이며, 두번째는 1917년부터 1976년까지의 10월 혁명~문화대혁명 기간입니다. 전자가 마르크스주의의 가설이 자리를 잡는 지점이었다면, 후자는 그 가설이 "예비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였습니다. 각각 대중혁명과 전위당적으로 존재하였던 두 체제가 결과론적으로 실패하였고,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이 시점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바디우는 "공산주의는 특정한 체제이면서 동시에 이데아"라는 자신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를 드러내는 방식은 또다른 모습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의 가설을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해 정치적 경험의 새로운 형태들 속에서 공산주의의 가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21세기 철학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디우는 그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임과 동시에 보편적 철학 사유의 전복이며,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인내해야함을 주장합니다.

동시에 알랭 바디우는 그러한 방식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현재의 대의민주정 역시 반대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오직 개개인의 집합체일 뿐, 그 자체로서 일정한 철학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반철학의 체제"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정이 취약하다는 뜻이며, 대의민주정에 출마하는 대표자 역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출발한 존재이므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철학적으로조차 공산주의에 다가갈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알랭 바디우가 제시하는 대안은, 만인의 "귀족 되기"로, 여기서 귀족은 사전적 의미의 귀족이 아닌 플라토니즘에서 말하는 귀족의 개념입니다. 플라톤이 "철학을 배우고 사유하는 역할의 귀족"을 사회 지도층으로 내세운 것에서 착안하여, 바디우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어 자유로운 조건 하에 토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디우가 혁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만인의 철학되기는 하나의 방법론임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알랭 바디우에 제기되는 가장 주된 비판은 첫번째로 그가 자코뱅주의적 오류를 범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랑시에르나 지젝중 한 사람이 이 내용으로 바디우를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보다 더 대중, 그리고 철학계에서 받는 비판은, 바디우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플라톤주의자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참고 저서 및 논문

* 사르코지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 – 공산주의적 가설 / 알랭 바디우

*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 / 알랭 바디우, 페터 엥겔만

* 처음 읽는 프랑스 철학사 / 철학 아카데미

* 2012년 한겨레-알랭 바디우 인터뷰

* 공산주의와 ‘도래할 민주주의’: 바디우와 지젝의 ‘공산주의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도영